논어 5편 공야장 11장 · 원문·풀이

子曰：「吾未見剛者。」或對曰：「申棖。」子曰：「棖也慾！焉得剛？」

독음 · 자왈 오미견강자 혹대왈 신정 자왈 정야욕 언득강

쉬운 풀이(요약) · 욕심이 많으면 그것에 얽매이므로 강직하기 어렵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吾 자기 오 오 / 未 아닐 미 미

見 볼 견 견 / 剛 굳을 강 강 / 者 놈 자 / 或 혹 혹 혹

對 마주볼 대 대 / 申 펼 신 신 / 棖 문설주 정 정 / 也 어조사 야

慾 욕심낼 욕 욕 / 焉 어찌 언 언 / 得 얻을 득 득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